

연세 성정치 위원회

the other

회의 안건 - 96/5/11

발신 : 위원장

대외비(이번엔 진짜로)

-순서-

- I. 선전포고!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고탐!
제106주년 메이데이 문화제 평가
 - II. 앞으로의 계획
 - III. 제1차 성정치 연합 모임 보고
 - IV. 기타 논의할 사항들
-

1. 제106주년 메이데이 문화제 평가

여러 가지의 취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메이데이 기획단과 연대하여 문화제를 치른 것에 대하여 모두 수고했다는 말로 시작하고 싶다. 이번을 계기로 하여 the other의 문제 의식을 대외적으로 퍼트리고 또한 대내적으로 성정치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리들의 발전을 보다 성숙시키고 성과로 남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철저한 평가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획과정에서부터 평가과정까지 하나 하나씩 짚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평가문은 5월4일 날 이루어진 논의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그 때 참석한 자들은 정혜윤, 김가훈, 김성희, 이종도, 그리고 최승민이었다.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1. 노동절 자체에 대한 평가

많이 논의한 내용이지만, 이번 노동절 행사는 예전과는 달랐다. 이것은 노동, 환경, 성이라는 영역들이 연대를 추구하였다는 것에 근거한다. 즉, 열사 정국이라 것과 체르노빌 10주년이라는 구체적인 정세와 일상화되어 있는 성차별의 문제 (이외에도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으리라)- 보수적 정치 흐름들에 대한 총체적인 저항을 한다는 의미에서 연대를 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연대의 필요성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법대와 하려던 것도 이러한 연대였으며, 이번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정치 위원회가 노동절에 참가하지 않았나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즉, 연대의 필요성은 막연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연대를 할 것인가, 특히 노동절이라는 시공 속에서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사실 성정치 위원회는 3월부터 법대와 문화제를 기획하기 시작하였고, 비록 중간에 노수석 학우의 죽음으로 나가리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은 나름대로 많이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연대(메이데이 기획단)와는 전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성정치 위원회의 역량이 작기 때문일 것이다. 진정한 연대는 서로의 추상적인 문제의식에서부터 구체적인 실무까지 애초부터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같은 선상에서의 연대이어야 한다. 언급하였듯이 이번에는 여러 가지의 불리한 제약들이 있었다. 물론, 전적인 책임을 기획단에게 지울 수는 없지만, 자료집에 환경과 성이 왜 연대를 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고, 기획단에서 전혀 사전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즉, 자료집에 우리의 글을 '투고'한 형식이 되었다. 연대라는 것은 모든 주체들이 주장하였으나, 표면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일방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번은 실험적일 수 밖에 없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단 측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2. 성정치 위원회에 대한 평가

a) 내용

노동절을 맞이하여 여성 노동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는 큰 (?)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대 담론 속에서 여성의 문제는 항상 도외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꺼낸 것은 노동 운동을 하는 학우들과 또한 일반 학우들에게도 잘 호소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더군다나 총여학생회의 역사가 자본주의와 결탁한 가부장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들의 문제 제기는 소중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희롱의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밝힌 것도 효과적이었다.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끄집어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또한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말 힘든 문제이고 (예전에 발제를 했듯이 가족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일종의 블랙박스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가 가족을 통하여 재생산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의 보수성을 재생산한다는 측면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모두 봤을테지만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없진 않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주제 별로 팀을 짰

는데, 그 팀들 사이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단 한 번)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도 역시 시가이 부족했던 탓이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세미나를 잘 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의 문제와 여성 노동자의 문제들, 그리고 여성 일반의 문제가 되는 성희롱이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지는 어렵게 감이 잡힐 지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학우들에게 형상화시킬 것인 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미흡하였다. 더군다나 노동절이라는 시공속에서 (이 부분은 '연대'의 측면에서 평가된 것인데) 우리들의 문제 의식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잘 들어 났는지 의문이 생긴다. 물론 총론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비 오는 속에서 조형물이 없어져서 더더욱 학우들에게는 성정치가 왜 노동절에 같이 연대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정치의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즉, 크게는 노동절과 성정치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작게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들과 가족의 문제들 사이의 접점들을 효과적으로 표출시키지 못한 것 같다. 보다 총체화된 문제 의식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들은 <페미니즘 사상>의 제6장 사회주의 페미니즘 부분을 세미나하면서 더욱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b) 실무분담 - 조직적 체계에 대한 평가

여기에서도 역시 시간상 촉박함의 문제와 공간이 없다는 문제가 가장 절실히 들어나는 부분이다. 성원들은 모두다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어떠한 실무분담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조직들처럼 '선전부' '조직부'로 나누질 않았고 대신 테마 별로 팀을 짰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은 모든 성원들이 한 테마 속에서 모든 부분을 고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팀에서 문화제를 한 번 치른 선배들과 그렇지 못한 후배들의 균형이 잘 안 맞았다는 것은 약간의 오류였다. 물론, 모두 미학적인 기질을 발휘할 충분한 역량이 있지는 않나 하지만!

그리고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 간의 실무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테마별의 팀은 사실상 전시판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체계였다. 물론 그것이 가장 큰 '행사'였고, 가장 많은 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5/2 행사와 5/3 행사가 있었고, 그것을 책임지고 준비할 사람들이 없었다. 즉, 전시판이 완성된 후에 테마별 팀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 애초부터, 아니면 최소한 전시판이 끝나자마자 다시 새롭게 팀을 째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가장 많이 몸으로 때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the other의 운영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인데, 이것은 3부에서 얘기해보도록 하자.

c) 간담회

간담회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날씨가 좋았던 것은 정말로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나, 마이크와 앰프가 준비되지 않아서 간담회가 내부적인 세미나의 형식이 되어버렸다. 위원회 사람들이나 목하회 회장, 아니면 기획단 사람들이 몇몇 들렀다가 간 것(의무적으로) 외에는 학우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였다. 그 전 이들이 노동절 집회였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어떻게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애초의 목적이 자유발언대 겸 간담회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5/2 행사는 실패하였다. 물론, 내부적으로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실 그 자리에서 김혜련 씨가 해주신 얘기 중에서 우리가 받아 안아야 할 점들이 있었으나 또한 우리가 비판하고 넘어갈 사항들이 있지 않나 싶다. 이것도 역시 페미니즘 사상 세미나를 하면서 발전시켰으면 한다.

d)영화제

다행이도 역시 이 날은 날씨가 좋았다. 그리고 준비과정도 순조롭게 되어서 성공적으로 영화제를 치렀다. 30-40명이 왔었고, 그 숫자는 거의 끝까지 유지되지 않았나 싶다. 뒤늦게 선전물을 만들어 배포하였지만, 그래도 Sweetie를 통하여 가족의 문제가 잘 부각되길 않았나 싶다. 아침부터 선전전을 하였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길 않았을까, 그리고 문제 의식을 더 부각시킬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비록 영상기기 빌리는 데에 돈이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를 위한 요령이 획득되지 않았을까.

이번 행사를 냉정하게 평가하자. 그러나 후회나 자책은 하지 말자. 이번 행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또한 정체성을 전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소한 것이었다. △

II. 앞으로의 the other의 계획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항상 많이 꺼낸 것이지만, 웬지 별 진전이 없는 것 같다. 여태까지 the other가 활동했던 방식은 어느 일이 닦칠 때 그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다. 물론, 우리가 미래 정세를 예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어떠한 문제 의식으로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하며, 거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부여해준다고 하더라도 문서화시킬 필요가 있다. 성정치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 의식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성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유동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성, 그리고 성정치라는 것 자체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서동진 씨의 뜻깊은 말씀 :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성정치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 문화제를 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타난 것은 조직 체계와 공간의 문제인 것 같다.

1.the other의 작업

조직 체계에 대한 문제나 공간 문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얘기가 이루어질 위하여 우리가 최소한 한 학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은 전에도 몇 번 얘기가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공유해보자.

a)정기적인 자보 작업

우리의 문제 의식을 자보를 통하여 공개화하고 논쟁화한다. 성의 공론화 수준이 미약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조교 사건과 같은 큰 사건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정세는 항상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의 문제이다. 이번 미스 코리아 대회(15일) 때 비판 자보를 분할 수 있지 않을까.

b)학내 여성학/성정치 학회/소모임들을 알아내고 이들과의 연대를 추고한다.

성청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별적인 인사들을 위원회로 끌어오는 것과 더불어 학내에 존재하는 소모임들과 커리 교환이나 연석 세미나 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c)학외 성정치 모임들과의 연대를 한다.

이것은 이미 추진 중이다. 성정치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 하고 있다. 이미 6개 대학(서울, 서강, 한양, 연세, 이화, 동덕) 주체들이 첫 모임을 가졌었고, 상명과 덕성은 추진 중이라고 한다. 성정치의 기반을 튼튼히 하자.

d)자료 수집.

정보화 사회! 정보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 잡지 신문은 물론이고 통신, 인터넷 속에서도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알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역

시 성을 논쟁화시키는 작업이며 또한 위에서 언급한 우리들만의 정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다른 여성 단체들(+총여)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e)글 쓰기

the other가 독자적으로 매체를 만들기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매체를 통하여 글을 써내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대중 정치 신문에서 원고 요청이 들어왔고, 돌아가면서 글을 써보도록 하자. 무엇이든 간에 글을 쓰면서 자기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문제 의식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즉,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의 '성정치'적 생각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대학생신문과 입장은 거의 우리의 글은 무슨 내용이든지 무조건 실어 주는 분위기이다. 잘 이용하자.

f)성정치 수련회 추진

이것은 뒤에가서 얘기해보도록.

g)공간투쟁!

이번 문화제를 하면서 정말 공간의 문제가 뼈저리게 느껴졌다. 컨테이너는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의견으로, 제2대학과 열한번재 테제와 합의를 봐서 같이 찌를 수 있는 곳은 모두 찢어보기로 한다. 이 때, 우리는 학생 자치 공간에 대한 얘기와 학생회 중심의 운동을 비판할 수 있으며, 이 속에서 제2대학, 성정치, 문화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퍼트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수석 장례식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학우들의 목소리가 나왔고, 대동제 기간에 학생회가 아닌 이유로 사업허가를 못받은 모임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물론 우리가 학내의 모든 소모임을 대변할 수 없고, 하여간 이 세 운동들이 현재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래도 가능성이 어대인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이번 학기에 가장 열심히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가싶다. 다른 단체들과 합의가 되면 여기에 대한 정보 수집과 치열한 자보 작업이 예상된다.

h)슬로건 만들기

위에 나열한 작업들을 정리하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the other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도록 하자) 수행하도록 한다.

2.조직적 체계

성정치 위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조직 체계와 책임 분담을 하였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그리고 확실히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른 조직들과 같은 체계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앞으로 할 자보 작업이나 글쓰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거기에 확실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즉,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원장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다. 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제안한다. 명칭은 임의적.

i)세미나 부장 - 세미나를 책임진다. 즉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발제를 강요(?)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발제문 등을 스크랩 해두는 작업 등등.

ii)재정부장 - 위원들 쫓아다니면서 회비를 내게 한다. 그리고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사람!!

iii)선전부장 - 자보 작업과 여타의 선전 등.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부장은 한 명이 하되, 1-2명 더 투여할 필요가 있다. 정보부장과 자주 연락을 하여서 적절한 판단을 하여서 자보를 쓰고 분하는 것.

iv)정보부장 - 통신이나 신문, 잡지 등을 항상 탐색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다른 성원들에게 알리도록. 새로운 페미니즘 영화, 강연, 행사, 사건, 학내 여론 등.

이상은 한 번 생각해본 것이고, 다른 제안이 있으면 얘기해보도록 한다. 어쨌든, '-부장'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하여 각자 판단하고 알아서 하도록 하자. 그리고 '-부장'들끼리 항상 연락을 취하고 있도록. 예를 들어, 정보부장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선전부장에게 곧바로 연락

해서 자보를 쓸 것인지를 판단하고 다른 성원들을 연락하여 자보를 만들고 분한다. 즉,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방도 없는 우리가 모두 다 모여서 얘기한 다음에 일을 수행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며, 어찌피 다 못 모이는 상황에서 힘이 빠지는 일이다.

the other는 이제 토요일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하였다. 주중에 무슨 일이 있는데도 토요일까지 기다리려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위원장 아래에 다 모이도록 하는 것도 무리이고, 각자 책임을 짐으로써 성정치에 대한 결의(?)를 다지자! △

III. 성정치 연합 제1차 모임에 대한 보고

지난 5월 6일 위에 나열한 6개의 대학이 모였었다. 이것은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였으며, 성정치 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한 자리에 처음 모여서 '성정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성정치 운동을 하는 '진정한' 동지를 만난 자리였다. 모두 이 자리에서 성정치에 대한 확신이 커지지 않았을까 한다.

1. 각 대학의 성정치 모임이 생긴 경로와 현 상황을 약간 소개한다.

a)서울대 - 21세기 진학련 산하에 성정치국이 있고, 국장이 주로 혼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단위가 약8개가 되지만, 파편적인 성격을 띠는다고 한다. 성정치국장은 학내의 여러 동아리나 소모임, 또는 개개인 간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번 반대학(제2대학)을 통하여 성정치 강좌만 4개를 개설하였다. 다음 주부터는 반대학 문화제(성정치 문화제)를 한다.

b)서강대 - 총학생회 산하에 있으나 국은 아니고 위원회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공개 모집을 통하여 약 20명 정도의 위원을 모집하였으며, 서강대 내의 담론 형성과 내년에는 단위를 만드는 등 조직화 전략에 많은 힘을 쓸 것이라고 한다. 여학생 휴게실이 없어져서 이것을 복귀하기 위한 투쟁을 펼칠 것이며, 여휴를 성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17일 강연회를 한다.

c)한양대 - 선거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총여가 없어졌고, 총학생회 산하에 여성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 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현재 3-4명의 연구위원이 있으며, 다음주 축제 기간 동안 정신대 할머니 그림전과 뿌리내림과 함께 성forum을 개최한다. 사실 이 행사에 우리들의 참여를 제안하였으나 이것은 나중에 얘기해보도록 하자.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세미나 성과물을 모아서 배포할 예정이며,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대자보 논쟁을 할 것이라....

d)동덕여대 - 아직 추진 중이며, 제2대학에 성정치 강좌를 개설하여, 이것을 토대로 '성정치 행동 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이 대학에 민중연대행동위원회와 영화행동위원회가 있으며, 성정치가 3번째가 된다. 총학생회 산하 행동위원회 산하 성정치행동위.

e)이화여대 - 겨울 방학 동안 여성위원회 연구 단위를 모집하였으며, 얼마전에 페미니즘 문화제를 치루었다. 이후는 내부 강화를 위한 작업을 할 것이며, 대학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성적인 문제들, 서울대 엽서 사건, 조인트미팅, 고려대의 횡포 등을 고발, 투쟁할 것이라고 한다. 대동제 기간에 공개 토론회를 연다.

2. 이 때 나왔던 제안

a)미인 대회 폐지 운동을 같이 한다. 여성 단체들과 여러 대학들이 연대하여 15일 날 항방을 한다든지. 자료는 한양대에서 통신으로 보내기로 했다.

b)성정치 연합을 지향한다.

c)성정치를 하는 주체들 수련회를 기획한다. 여름 방학 중에(8월?) 현재 6대학과 구상 중인 2개의 대학(상명, 덕성) 성정치/여성 위원회 전원 캠프를 가서 성정치를 하는 주체들 간의 '동지애'를 키우고 성정치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한다. 사실, 8개 정도의 대학이 모여 전원 참석한다면,

130명 정도나 된다!!!

3. 성정치 연합 모임

a)명칭 : 서울대에서 임시 이름을 결정하였다. '나란한 性, 빼딱한 性'을 줄여서 '나비'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들지만, 임시적으로 이 이름을 분히기로 하였다.

b)연합체 : 성정치 연합체를 만든다는 것에 대하여 거의 전원 합의한 상황이다. 물론 정파도 다르고, 각자 성정치에 대한 의견들이 다를 수 있지만(이것은 계속 얘기해봐야할 사항)그래도 연합체를 토대로 하여 성정치를 적극적으로 운동화시키고 대중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합의를 봤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할 지, 그리고 어떠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 얘기해봐야 할 것이다. 단, 성정치 연합에서는 학생회 연합(서여대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전에 언급했다싶이 이 연합체를 통하여 성정치를 독자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일단은, '나비'가 성정치 정보 교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의되었다. △

IV 기타 논의할 사항....

1. 세미나 커리

이번 학기 세미나 커리를 대강 정리해왔다.

4/20 <페미니즘 사상>로즈마리 통 1 - 4장

5/11 5 - 8장

5/18 <성의 정치학>케이트 밀레트 1장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제프리 위스 1 - 3장

5/25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서동진 외

중 1장 "누가 성정치를 두려워 하라"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제프리 위스 4 - 6장

6/1 - 6/8 <성의 역사>1권